

PUBLION

2026년

도서목록

퍼블리온은

새롭고,
필요하고,
읽는 즐거움이 담긴
책을 만듭니다.

Publion
would like to
create novel,
necessary,
and enjoyable
books.



★ 2026년 신간

10대의 독서

읽고, 묻고,
나아가는
독서의 힘

류지후 지음
—
288쪽
—
18,000원

“독서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는 말이었다.
내가 읽은 책들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 저자 류지후

10대의 시선으로 읽은 56권의 고전, 청소년의 내일을 바꾸는 인문학 나침반!

《10대의 독서》는 독서가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자, 지금 시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읽기 안내서다. 미래를 설계하는 10대의 서재 속 고전 56권에서 찾아낸 인류애, 정의, 자유, 이성, 행복, 진리, 권력, 책임, 사회질서에 대한 깊은 사유는 독서가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주는 마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사고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나침반임을 보여준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매일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성인이 청소년에게 독서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 독자가 또래에게 직접 들려주는 독서 경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저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중에서 문학·철학·사회과학·역사·자연과학 도서 총 56편의 독서록을 모아 서평집을 출간했다. 각 글에는 한 권의 책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질문을 품게 되었으며,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진솔하게 담겨 있다.

《10대의 독서》는 독서를 시험 대비나 지식 축적의 수단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독서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 책을 통해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주고, 자기만의 철학을 쌓아가도록 해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인생의 길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고,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자신과 삶을 돌아보게 해주며, 사회과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원칙과 질서를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과학·지리·데이터·윤리는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일러준다.

청소년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독서 교육에 활용하기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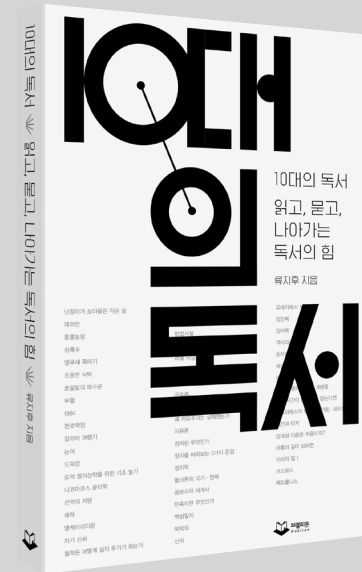
이 책은 청소년 독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성적, 경쟁, 불안, 사회적 불평등, 정의와 책임 같은 주제들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언어와 시선으로 풀어낸다. 이로 인해 독서에 부담을 느끼거나 “책을 읽어도 무슨 생각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또한 학교 독서 수업, 수행평가, 독서 토론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실제 청소년의 언어로 쓰인 글은 독서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책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확장해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독서는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고,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흘’을 ‘4일’로,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여 벌어진 일과 ‘가로등’은 있는데 왜 ‘세로등’은 없느냐고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글의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며, 실생활에 활용하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literacy)이 부족해 일어난 현상이다. 문해력 저하는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독서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필수임을 보여준다.

《10대의 독서》는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한 권의 책 앞에서 멈추어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임을 일깨워준다. 청소년들에게 책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사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는 ‘독서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책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책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책을 통해 달라진 나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

《10대의 독서》는 나만의 독서 여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쌓게 해준다.

- 머릿속에 맴도는 막연한 생각들을 명확한 문장으로 고집어내는 언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 ‘읽기만 하는 독서’에서 ‘생각을 움직이는 독서’를 경험할 수 있다.
- 복잡한 문장도 한눈에 파악하는 문해력을 길러준다.
- 책을 먼저 읽고, 독서 기록을 남기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 하루를 알차게 채우는 ‘멋진 기록가’로 성장하게 된다.
- 어떤 책을 읽어도 자신감 넘치는 나를 만들 수 있다.
- 섯품의 유혹에서 벗어나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기쁨을 알게 된다.
- 책을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깊이 있는 독서와 기록의 경험을 쌓아, 향후 학교 활동이나 포트폴리오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김초엽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 및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쓴 책으로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방금 떠난 세계』 『행성어 서점』,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 중편소설 『프레모사』, 논픽션 『사이보그가 되다』(공저), 에세이 『책과 우연들』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젊은작가상,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존재에 대한 섬찔할 만큼
아름다운 시선

★ 2024 문학나눔 도서 선정
★ 2024 예스24 올해의책 선정

김초엽 장편소설

파 — 건 ／ 자 — 들



김초엽 지음 | 19,000원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를 전율케 하는 작가, 김초엽이 가닿은 절실하고도 경이로운 질문

인간이 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낳은 행성으로 바꾸어보자는 생각으로 쓰게 된 이 소설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마음을 쏟게 되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호기심,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를 들여다보고 긴 모험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 ‘작가의 말’에서

**파견자는 매료와 증오를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직업입니다.
무언가를 끄적하듯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불태워버리고 싶은 만큼 증오해야 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파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芽胞)로 가득찬 지상 세계. 사람들은 어둡고
퀴퀴한 지하 도시로 떠밀려와 반쪽짜리 삶을 이어간다. 형편없는 음식에 만
족하며, 혹여라도 광증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하지만 태린은 누구보다 지상을
갈망한다. 그에게 일렁이는 노을의 황홀한 빛깔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
의 반짝임을 알려준 이가 있었기 때문에. 태린은 스승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 그와 나란히 지상에 서고자 한다. 파견자는 지상을 향한 매혹뿐 아니라,
증오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이제프의 조언을 되새기며. 파견자 최종 시험을
앞둔 어느 날 태린에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태린은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주로부터 불시착한 먼지들 때문에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곳을 탐
사하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목격하는 파견자들의 이야기.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

김초엽은 몇 년 전 한 미술 전시에 발표한 짧은 이야기를 씨앗 삼아 이를 긴
호흡의 장편소설 『파견자들』로 탄생시켰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이 무엇으
로 구성된 존재인지 살피고, 이를 통해 인간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탐구한다. 그가 자신만의 탐구 과정과 답안을 고민하
며 이번에 몰두한 것은 곰팡이와 버섯 등의 생물을 포함하는 ‘균류’다. 분해
하고 부패해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들, 달큰하면서도 속을 울렁이게 만드는
냄새 등으로 떠올려지는 어떤 존재 말이다. 균류를 모델로 소설 속의 ‘범람
체’를 고안해낸 그는, “인간의 감각적 자원이 그것을 상상하기에 얼마나 모자
란지를 새삼 느꼈지만, 꼭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작가의
말)고 말한다.

김초엽 신작 장편소설 『파견자들』출간 비하인드

저자 인터뷰

Q 이번 장편소설은 전작 『행성어 서점』의 짧은 소
설 「늑대의 소년」, 「오염구역」, 「가장자리 너머」를
씨앗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구상
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행성어 서점』의 짧은 소설 연작은 한 미술 전
시에 참여하면서 구상한 작품입니다. 전시 주제
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 짧은 소설들을 쓰는
동안 인간의 몸과 자연의 물질들이 어떻게 얹히
고 또 섞이는지, 몸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것
혹은 개별적인 개체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불분
명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하나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전부 외부의 환경
에서 온 것이고, 또 한 인간의 몸에는 세포만큼
많은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
도 인간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니, 인간과 인간
바깥의 경계를 지워보는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
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파견자들』로 이
어졌습니다.

장편으로 이야기를 확장할 때 먼저 고려했던 건,
‘인간이 외계행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외
계행성으로 변한 이야기를 써보자’라는 것이었어
요. 그렇게 변해버린 외계행성 같은 지구를 탐사
하는 파견자들, 그리고 그들의 증오와 사랑과 헤
어짐, 복잡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
다는 마음으로 장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Q 제목을 ‘파견자들’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제목은 계속 고민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태린’이라는 확고한 주인공
한 명, 혹은 투톱이 이끄는 이야기였어요. 그
래서 ‘파견자들’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붙이
긴 했지만 다 쓰고 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
러 인물들이 주인공일 거라고 짐작될 수도 있
는 제목이어서요. 그렇지만 계속 고민을 해보아
도 ‘파견자들’만큼 어울리는 제목은 없어서 결
국 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장소로 변해

버린 지구를 탐사하고, 놀라운 진실을 대면하
는 파견자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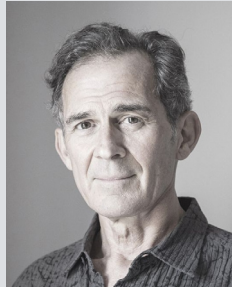
Q 다른 감각의 타자가 만나는 사건은 작가님 소설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소
설에서는 ‘나’라는 자아 감각이 강한 개체(인간)와
집단적인 감각과 기억을 공유하는 ‘범람체’가 만났
니다. 혐오와 두려움, 매혹이 뒤섞인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나요?

A 주인공 태린은 범람체들을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것들에게 매료되기도 하는데
요. 소설을 읽는 분들이 태린의 마음에 동화되며
이야기를 따라가기를 바랐어요. 물론 어려운 작업
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와 매혹을 동
시에 갖도록 텍스트로 설득하는 일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요. 덕분에 제가 쓴 이야기 중에 가장 긴 분량의
소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풀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 짧은 분량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Q 팬데믹과 기후 위기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이전
과는 같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는 공생할 수 있을지, 가능
하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지 작가님의 현재 답변
이 궁금합니다.

A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소설을 쓰며 인간과 비
인간 존재의 공생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인간
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었
어요. 지금의 잠정적인 생각은, 공생은 아주 어렵
고, 서로 침투하는 것이고, 서로 오염되고 얹히며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변
화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신을 전혀 잃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공생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루퍼트 스파이라 Rupert Spira



루퍼트 스파이라는 어릴 때부터 실체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열일곱 살에 명상을 배웠고, 지난 20여 년간 프랜시스 롤스 박사와 인도 북부의 샹카라차리아인 산타난다 사라스와티의 지도 아래 정통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의 명상에 대한 연구와 수행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P. D. 우스펜스키, 크리슈나무르티, 루미,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닷타, 로버트 애덤스의 가르침에 몰두했으며, 마침내 1997년에 스승인 프랜시스 루실을

만나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카슈미르 샤이비즘의 탄트라 전통인 아트마난다 크리슈나 메논의 직접적인 길(Direct Path)의 가르침을 루퍼트에게 전수해주었고, 무엇보다도 경험의 진정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었다. 루퍼트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며, 유럽과 미국에서 정기적인 모임과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명상의 정수 시리즈는 루퍼트 스파이라가 자신의 모임과 수행에서 진행했던 명상을 엮은 것으로, 모든 위대한 종교적, 영적 전통의 핵심에 놓여 있는 본질적인 불이론적 이해에 대한 명상을 다룬다. 어떠한 노력이나 훈련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보도록 장려하는 이 단순한 명상법은 우리의 본질적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평온함과 충만함에 대한 경험적 이해에 이르도록 안내해준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퍼트 스파이라

김주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내면소통, 명상, 마음근력, 회복탄력성, 설득과 리더십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내면소통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의 연구 모임인 대한명상의학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장자와 반야심경에 심취하여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 미국 쿤달리니 요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으며, 과학적 명상 연구를 선도하는 MLI(The Mind and Life Institute)의 SRI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탈리아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볼로냐대학교에서 움베르토 에코 교수에게 기호학을 사사했으며,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내면소통』, 『회복탄력성』, 『그릿』,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설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드라이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등이 있다.

“진짜 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명상이다.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으로서의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본성이 곧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고 알아차림을 그저 알아차리게 되면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차오른다.

스파이라의 논의는 주로 베단타 철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기독교나 불교의 관점도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베단타 철학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이고도 종교적인 것들을 짚어내고 핵심적 논의만을 추출하여 현대적이고도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가장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종류 과정을 거쳐 원액을 뽑아내듯이 베단타 철학으로부터 핵심만 추출한 그의 논의는 기독교나 불교의 가르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어떠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욱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시에 어떠한 명상 지도자보다도 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환

youtube.com/@joohan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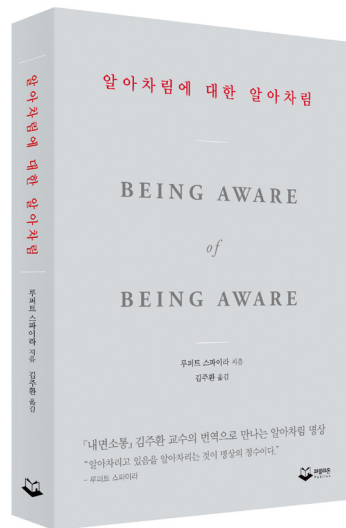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 김주환 옮김 | 18,000원

『내면소통』 김주환 교수의 번역으로 만나는 알아차림 명상

세계적 명사가 루퍼트 스파이라의 “자아 탐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정수이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상은 오로지 마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마음을 집중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다. 우파니샤드의 심오한 가르침이자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알아차림은 바다 위에서 격렬하게 몰아치는 폭풍과 상관없이 항상 바다 깊숙한 곳에 있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이자 인도 베단타 철학의 정수
삶의 단순한 진실이 강력한 은유로 빛을 발한다!

베스트셀러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의 번역으로 만나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은 세계적인 명사가 루퍼트 스파이라의 ‘명상의 정수 시리즈’ 그 첫 번째 권이다. 명상의 정수 시리즈는 루퍼트 스파이라가 자신의 모임과 수행에서 진행했던 명상을 엮은 것으로, 모든 위대한 종교적, 영적 전통의 핵심에 놓여 있는 본질적인 불이론(아트바이타)적 이해에 대한 명상을 다룬다. 스파이라는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의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참나)를 찾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어떠한 노력이나 훈련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보도록 장려하는 이 간단하고 명쾌한 명상법은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평온함과 이유 없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알게 해준다. 우리 존재에 대한 자각(“알아차림”)은 행복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현대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보다도 루퍼트 스파이라의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디팩 초프라, 『당신이 우주다』 저자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은 내가 지난 40년 동안 명상과 기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이 책이 당신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샘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루퍼트 스파이라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 명상이 주는 지극한 평온함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역자로서 그 이상의 보람은 없겠다. 진짜 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명상이다.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으로서의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김주환

경험의 본질을 관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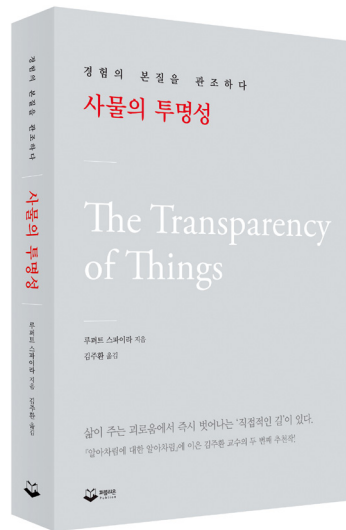
사물의 투명성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 김주환 옮김 | 22,000원

삶의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 있다!

『내면소통』 김주환 교수의 번역으로 만나는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 명상 두 번째 이야기



경험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복해진다.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국내에 알아차림 명상의 열풍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명사가 루퍼트 스파이라의 ‘명상의 정수’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사물의 투명성』은 경험의 본질을 다루는 관조와 대화를 모은 책으로, 불이론(Non-Dualism)의 관점에서 살펴본 ‘의식’에 대한 본격 탐구서이다. 스파이라는 불이론을 기반으로 의식과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접근법인 ‘직접적인 길(Direct Path)’을 안내한다.

‘직접적인 길’은 복잡한 수행 없이 자아의 본질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경험의 근원은 의식이며, 의식과 실재는 하나다.

불이론(Non-Dualism)의 관점에서 살펴본

‘의식’에 대한 본격 탐구서

『사물의 투명성』은 단순히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세상 만물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의식과, 우리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탐구서이다.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의식의 본질을 다루며, 의식(Consciousness)이 세상 만물과 상호작용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탐구한다. 따라서 이 책은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의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 * 사물은 몸,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투명하다’는 것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 대상이란 의식이 자기 알기를 하는 방식 중 하나다.
- * 의식이란 곧 ‘경험한다는 것’이며, 모든 경험의 근원이고 실체이다.
- * 모든 사물은 의식의 표현이며, 세상 만물은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
- * 우리의 경험은 하나의 완벽한 총체로, 의식과 사유, 감각, 지각은 하나의 경험이다.
- * 의식은 “나는 어떠한 것이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로, 그리고 다시 “나는 모든 것이다”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차별의 길에서 통합과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

“『사물의 투명성』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의식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 자신과 세상을 보다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내면 소통의 깊은 고요함과 텅 빈 자유로움을 선사하기 바랍니다.”

김주환

나는 언제나 나

루퍼트 스파이라 글 | 주잔나 첼레이 그림 | 김주환 옮김 | 18,000원

“나는 누구일까?”

“모든 게 변해도, 나는 언제나 나야.”

세계적인 명사가 루퍼트 스파이라가 선물하는
고요하고 따뜻한 어린이 명상 그림책



아이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 변치 않는 ‘나’를 만나는 시간!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사물의 투명성』으로 유명한
세계적 명사가 루퍼트 스파이라가 어린이의 눈높이로 풀어낸 첫 명상 그림책이에요.
“나는 존재한다(I Am)”는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을
따뜻한 문장과 서정적인 그림으로 들려줍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나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변치 않는 ‘진짜 나’의 존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이 책은
아이에게는 내면의 평화를,
어른에게는 존재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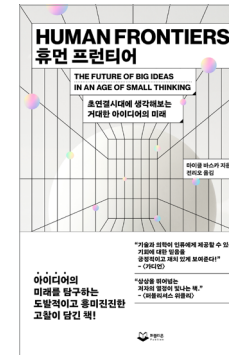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내면의 평온함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바로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라는 사실입니다.”
루퍼트 스파이라(『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사물의 투명성』 저자)

“이 책은 존재에 대한 직관적이고도 품위 있는 어린이 명상 안내서로,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탄력성 등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내면의 닻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주환(『그릿』, 『내면소통』 저자)



- 아이의 생애 첫 ‘알아차림 명상’을 위한 안내서
- 『그릿』 김주환 교수가 직접 번역하고, 부모·교사를 위한 활용법까지 수록
- 가정, 유치원, 학교, 명상센터, 심리치료 현장, 부모교육 등 어디서든 활용 가능
- 어린이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마음근력, 어른에게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줘요.
- 반복적으로 읽을수록 더 큰 울림을 주는 그림책이에요.



초연결시대에 생각해보는 아이디어의 미래 휴먼 프런티어

마이클 바스카 지음 | 전리오 옮김 | 680쪽 | 25,000원

★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아이디어의 미래를 탐구하는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고찰!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
정치와 사회, 산업과 비즈니스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전기와 백신, 산업혁명에서 양자생물학, 블록체인, 가상현실까지 지난 300년간 이루어진 엄청난 수준의 진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은 과학, 기술, 산업,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거대한 혁신이나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는 이유를 심도 있게 파헤친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거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될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본성이 어떻게 인류의 다음 단계를 결정지을지 지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기술과 의학이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이고 재치 있게 보여준다!
- 〈가디언〉

상상을 뛰어넘는 저자의 열정이 빛나는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150가지 질문과 대답 플래닛 B는 없다

마이크 버너스-리 지음 | 전리오 옮김 | 616쪽 | 25,000원

우리에게 다른 행성, 곧 플래닛 B(Planet B)는 없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먹을거리 공급,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항생제, 플라스틱 등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이처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에는 '장기적인 지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더욱 심층적이며 근본적인 약 150가지 질문이 나온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전 지구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개인, 단체, 심지어 국가의 역할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사실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일까지 제안하는 이 책은 더 늦기 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뿐인 지구(Planet A)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우리가 살아갈 이 행성을 더욱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이 되어줄 책!

— 〈뉴사이언티스트〉

이토록 어두운 시기에 인류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침서!

— 〈파이낸셜타임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안내서.

— 〈선데이타임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전 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

이재형 지음 | 368쪽 | 18,000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지금 멈춰도 기후변화는 계속된다!

기후위기사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생존 전략!

이 책은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 피해를 받을 미래 '기후피해세대'를 위한 책이지만, 그 이면은 현재 세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기후변화 지침서'다.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몰디브에서 모히토 한 잔' 하고 싶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나무'인 구상나무를 2080년 이후 한라산에서 고사목(枯死木)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면, 벚꽃축제를 3월이 아닌 4월에 즐기고 싶다면, 가뭄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을 겪고 싶지 않다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다음 세대가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지 않도록, '결정된 미래'가 아닌 '개선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같이 향해하길 바란다.

— 박호정, (전)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나에게 갠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지만,
시간과 함께 축적된 경험이 공유된 공간은
오히려 살아 움직임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지구공감이다.

—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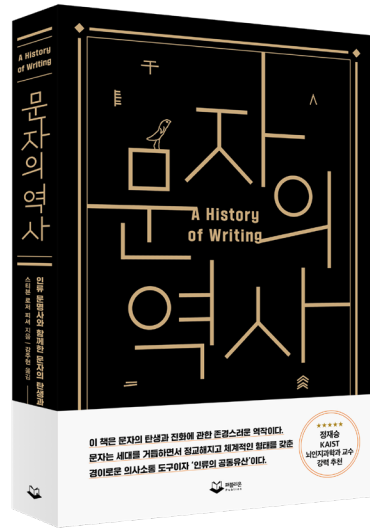
문자의 역사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 | 강주현 옮김 | 472쪽 | 33,000원

고대 수메르인이 사용한 최초의 문자에서

디지털 레크놀로지 시대의 문자까지

인류의 역사는 문자와 함께 발전했다!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강력 추천

고대의 돌과 뼈에 남겨진 자국부터 현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언어까지 문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했다. 정보를 저장하는 첫 단계(메두 글자, 눈금 막대, 그림문자)부터 시작해, 기원전 네 번째 천년시대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전한 문자 체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페니키아 문자는 어떻게 생겨났고 그 문자가 그리스 알파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집트의 상형문자, 중동의 아랍 문자, 동아시아의 문자인 한자(중국)·한글(한국)·가나(일본),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용된 문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서유럽 중세의 필사본, 인쇄가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 19세기와 20세기의 철자 규칙까지 문자와 관련된 것들을 세심하게 분석했다.

千
E
^
=
≡

문자 덕분에 한 세대의 지적 성취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축적되어

지금의 놀라운 인류 문명이 형성되었다.

지난 6천 년의 문명사는 곧 문자가 만들어낸 축적의 역사다!

◆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문자가 문명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넘어, 그 체계와 형태, 사용 방식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발전해온 '문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문자는 10만 년 전 누군가의 새기는 행위로 우연히 시작된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면서 허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해지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경이로운 의사소통 도구다.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문자를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문자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응해온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말이다.

건조하지만 통찰적인 이 책을 독자들이 한껏 즐기길 바란다. 문자 탄생의 초기, 인류 조상이 사용한 문자들이 현재 문자 못지않게 훌륭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디지털 문명이 더욱 가속화될 미래에 문자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해하며, 독자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술한 영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매 페이지마다 문자의 자연사 박물관을 고스란히 축조해놓은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자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이 책을 권한다.

정재승(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 문자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모방과 차용의 산물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수메르에서 잉태된 문자, 이집트의 상형문자, 중동의 아랍 문자, 동아시아의 한자(중국)와 한글(한국)과 가나(일본), 그리스와 로마의 알파벳문자, 그리고 대서양 건너편의 메소아메리카 문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모방과 차용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저자의 집념은 마치 탐정소설을 읽는 듯하다.

강주현

경이로운 책이다. 인류 문명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주제를 폭넓은 지식과 비전으로 다루었다.
《네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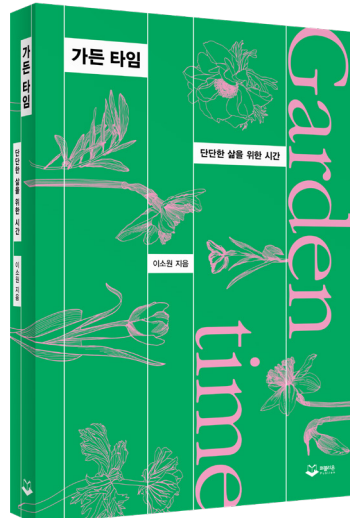
글쓰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흥미가 있다면 스티븐 로저 피셔의 책을 읽어보라. 권위 있는 전문가의 빛나는 통찰을 확인할 수 있다.
《뉴 사이언티스트》

인간 언어에 대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담았다. 모든 도서관에는 이 책이 비치되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 문학 저널》

단단한 삶을 위한 시간

가든 타임

이소원 지음 | 332쪽 | 23,000원



정원을 즐기며 삶을 발견하고,
사유를 통한 성장과 회복을 돕는 다정한 안내서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초록빛이

온몸을 깨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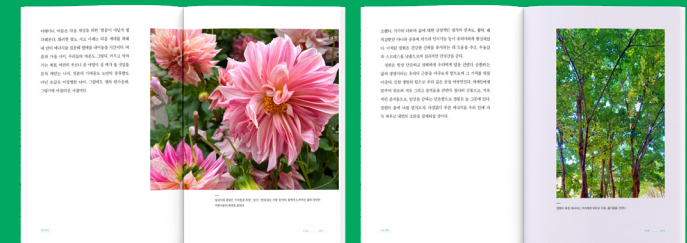
정원은 그저 예쁜 꽃과 나무가 있는 장소가 아니다.

자연과 마주하면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진짜 ‘나’를 만나는 곳이다.



| 정원에서 만나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 |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

바버라 데이비스 지음 | 박산호 옮김 | 608쪽 | 19,000원

★ 2025 문학나눔 도서 선정

탄탄한 서사, 정교한 구성,
섬세한 심리묘사로 유명한
서사 로맨스 분야의 탁월한 이야기꾼
바버라 데이비스가 전하는

역사적이고 서정적이며 마법적인 소설!

미국에서 1980년대를 살아가는 서점 주인 애슬린의 손에 우연히 들어온 아름다운 책 《후회하는 벨》과 《영원히, 그리고 다른 거짓말들》. 애슬린은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남녀의 시점으로 쓴 두 책을 보며 벨과 헤미가 실존 인물임을 직감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추적한다. 그래서 독자는 1980년대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0년대 뉴욕의 상류사회, 두 개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 파멸한 연인들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40년을 관통한 진실을 파헤치는 문학 미스터리 소설로, 미국의 굵직한 역사적 배경에 미스터리와 로맨스를 직조하여 잃어버린 사랑과 오래된 비밀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렸다. 특히 스릴러 번역역가로도 유명한 박산호 작가가 번역해 미스터리와 로맨스의 읽는 맛을 한층 배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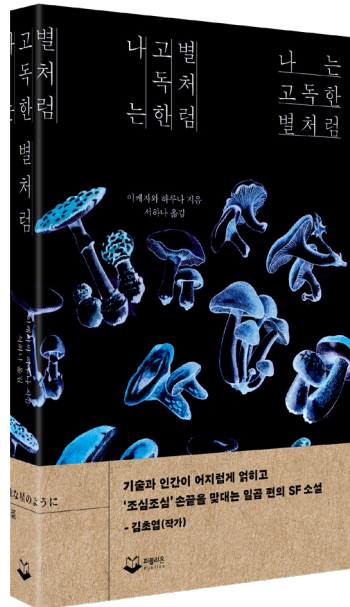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USA 투데이
극찬!

아마존
Later in Life Romance
1위

나는 고독한 별처럼

이케자와 하루나 지음 | 서하나 옮김 | 276쪽 | 18,000원



표제작 「나는 고독한 별처럼」으로

제6회 젠론SF신인상 이토야스시상을 수상한 이케자와 하루나의

절망적이면서 희망적인 일곱 편의 SF 소설

「나는 고독한 별처럼」속 일곱 편의 소설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머리에 버섯균을 식균하고, 지상에서 살기 어려워진 인간이 바다의 아이들을 키우며 인류의 끈을 이어가고, 인공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죽음을 기리는 콜로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불쑥 들이민다. 그러한 소설 속 세상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SF 소설이 주는 낯설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익숙직한 인물들과 그 일상이 익숙하게 펼쳐지며 그 이야기 속에 언젠가 닥칠지 모를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사

기술과 인간이 어지럽게 얹히고 ‘조심조심’ 손끝을 맞대는 일곱 편의 SF 소설

김초엽

이케자와 하루나의 「나는 고독한 별처럼」을 짧은 말로 소개하기는 어렵다. 이 소설들이 남기는 독특하고 기묘한 맛이 아주 복잡적이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데다, 일곱 편의 소설이 한 작가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는 폭신한 솜사탕 맛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입에 넣자마자 눈이 핑핑도는 홀로그램 맛이 난다. 그래도 이 소설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 ‘이미’ 벌어져 버린 세계로 독자를 혹 끌어당기는 흡인력이다.

「실은 불다, 실은 하얗다」에서 인류는 ‘이미’ 버섯과 공생하고 있다. 2차 성징이 오면 균근을 뇌에 심어 곰팡이를 매개로 하는 텔레파시를 얻는다. 이 소설은 사랑에 빠진 한 소녀의 시점에서 세계 속 단면을 푹 떠내어 펼쳐 놓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버섯을 경유해 생각하고 버섯을 경유해 사랑한다. 이렇듯 비밀상이 이미 일상인 세계 속에 대뜸 독자를 데려다 놓으며 작가는 경쾌한 실험을 시작한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그와 동시에 이케자와 하루나의 작품은 기술과 인간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비춘다. 모든 것을 보조하는 AI 파트너 ‘아이디’가 보편화된 세계에서, 아이디를 거부하거나 아이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 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배제된 사람들의 쓸쓸한 공간도 아니고, 아이디에 대한 적개심만을 품은 공간도 아니다.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경로로 흘러가는 대신, 기술과 인간이 어지럽게 얹히고 ‘조심조심’ 손끝을 맞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케자와 하루나가 그려내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우주를 떠도는 유령이 되어서도 오후 2시의 애프터눈 티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모두가 외계인과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취업해서 뭘 먹고 살지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 짜낸다. 세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일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작가의 긴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SF라는 장르와 그 주요 테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동시에, SF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산뜻하게 다가갈 이야기들이다.

특유의 장인정신으로 격조 높은 미의식을 보여주는 ‘미나 페르호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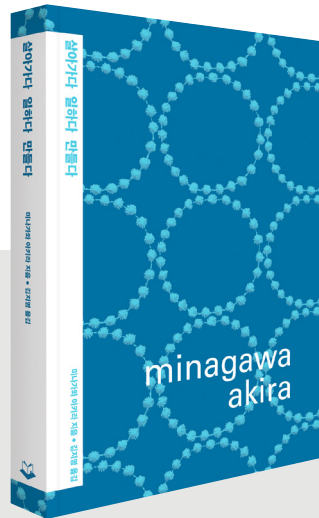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리커버)

미나가와 아키라 지음 | 김지영 옮김 | 308쪽 | 17,000원

무엇을 어떻게 일할 것인가?

누구와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동료 혹은 고객과 맺는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미나 페르호넨
minä perhonen

핀란드어로 미나는 ‘나’ 페르호넨은 ‘나비’

자연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수작업 무늬

손으로 그린 도안에서 탄생한 독창적인 천

간결함에 위트를 더한 감성적인 디자인

“사물은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한 계기다. 그러니까 대상 그 자체에는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을 할지 생각할 땐 분야나 사업의 분류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은지 그것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해야 할 일이 무엇든 좋은 기억이 된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그것이 기쁨일 때는 사물에서 빛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 미나가와 아키라

화사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패브릭과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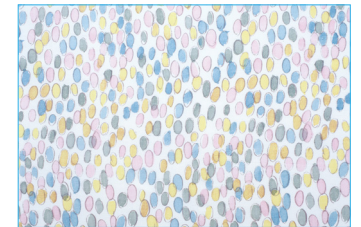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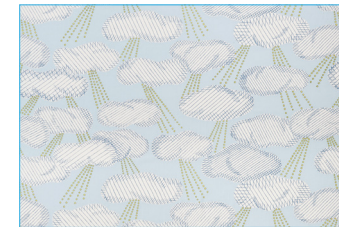
디자인 소품과 인테리어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미나 페르호넨’ 창업자 미나가와 아키라의 삶과 일에 대한 철학

자연을 모티브로 한 무늬, 간결함에 위트를 더한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미나 페르호넨’. 핀란드어로 미나는 ‘나’ 페르호넨은 ‘나비’를 뜻하는 브랜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와 같은 도안을 만들고, 나비가 춤추며 날아가듯이 세계의 곳곳에서 미나 페르호넨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다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미나 페르호넨을 창업한 미나가와 아키라는 손으로 그린 도안에서 탄생한 독창적인 천,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수명이 긴 디자인, 천을 만들고 옷을 봉제하는 공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정신으로 패브릭과 의류, 디자인 소품과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옷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미나 페르호넨을 이끌어온 과정을 통해 만들고,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속도와 효율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나가와 아키라의 모습은 ‘일하는 기쁨’,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해나가는 힘’, ‘협업을 통한 유연한 창작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델이 되어준다.





“여행작가는 여행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가 남긴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같은 길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보다 고맙고 뿌듯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졸저 《당신과 함께, 유럽》도
당신의 여행을 부르는 책이 되면 좋겠다.

당신의 당신과 함께,
어느 길에서나 행복하시길....”

— 양영훈

양영훈 여행작가 · 여행사진가

낯선 도시의 골목을 기웃거리고, 어느 산기슭의 조붓한 숲길을 걷고, 세계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그의 긴 여행이 시작된 것은 중학교 3학년의 여름방학 때부터였다. 처음 찾은 지리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풍경은 사춘기 문학 소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열병처럼 뜨거웠던 ‘지리산 앞이’는 아주 오랫동안 치유하지 못했고, 지리산이 불러온 역마살은 여태까지도 길 위의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한국여행작가협회의 창립 멤버이며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협회 부설 ‘여행작가학교’에서 ‘여행 사진의 실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여행이나 사진을 주제로 한 특강도 300회 이상 진행 중이다. 30여 년 동안 여행 작가의 길을 걸으며 개인 저서 14권, 공동 저서 20여 권을 펴냈다.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국어 등 교과서 6종에 여행기와 사진이 수록되었다.

e-mail travelmaker@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travelmaker>

유튜브 워킹맵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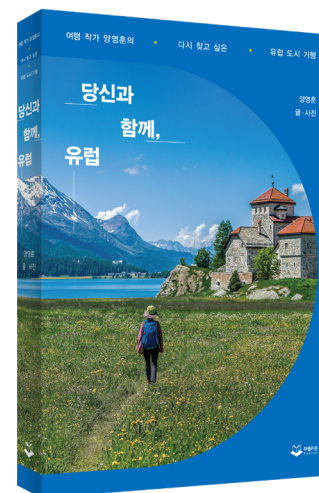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travelmaker.yang](https://www.instagram.com/travelmaker.yang)

여행 작가 양영훈의 * 다시 찾고 싶은 * 유럽 도시 기행

당신과 함께, 유럽

양영훈 글 · 사진 | 484쪽 | 25,000원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문화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
이곳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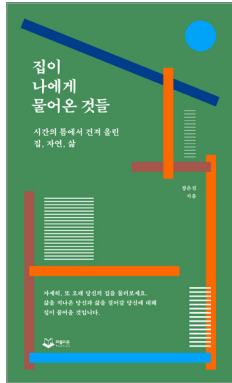


- ★ 당신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유럽의 도시와 명소 48곳
- ★ 자동차와 도보, 캠핑으로 즐길 수 있는 Camping Tip & Travel Tip 수록
- ★ 현실의 풍경으로 믿기지 않는 도판 400여 장 수록!

영화 속 풍경 같은 도시부터 웅장한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품은 도시,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남은 생애 꼭 한번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등 유럽의 도시와 명소 48곳을 소개한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그리스의 도시들 중 익숙한 곳은 익숙한 대로, 낯선 곳은 낯선 대로 제각각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문화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자동차와 도보, 캠핑 등 여행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의 도시와 명소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시간의 틈에서 건져 올린 집, 자연, 삶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장은진 지음 | 336쪽 | 1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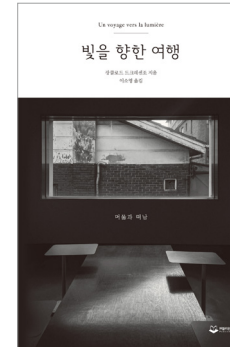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내가 머무는 공간,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나와 집을 둘러싼 바깥세상과 공존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이야기!

남편과 함께 1년 4개월에 걸쳐 지은 집 ‘기운재’는
아침에는 빛으로 밤에는 어둠으로 꼭 차는 집이다.
불안을 넘어서는 문지방(현관), 빛의 산책로(창문),
정주의 말뚝(문패), 너와 나의 별세계(다실), 변화
의 구조(스킵 플로어), 별 헤는 방(옥탑방), 수컷의 바
람(비밀의 방), 머리와 가슴의 시가 흐르는 공간(책
장)……. 집의 공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
을 하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과 삶을 함께한다.
집은 삶을 반영하고 삶에 영향을 주기에, 집의 여
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깊은 사유의 원천
이 된다. 내 몸이 딛고 부딪히고 어루만지는 나의
공간, 나의 집이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마음을 담아
낸 이 책은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돌
아보게 해준다.

“이 책은 집과 나의 색깔 있는
대화록입니다.
삶의 내용이 고유한 형식을 빚고,
형식이 다시 내용을 채워주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다가 이따금 종이 귀퉁이를 접어놓고
자세히, 또 오래
당신의 집을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삶을 지나온 당신과 삶을 걸어갈
당신에 대해 집이 물어올 것입니다.”

– 장은진



Un voyage vers la lumière

빛을 향한 여행 머뭇과 떠남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지음 | 이소영 옮김 | 216쪽 | 19,000원

‘2023 한국문학번역상’ 대상(프랑스어) 수상자!
프랑스 국립대학 한국학 창설자이자 문학비평가,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의 흑백 사진첩에 피어나는
인간에 대한 미학적 단상

오랫동안 한국 정치,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온 저자는 특히 한국 사진작가 김기찬, 조세희, 마
동욱의 작품 세계에서 1970~1980년대의 한국 사
회를 들여다보고 읽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그 시절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의 오랜 한국 사랑
이 이제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뀐 세계를 재구성
하며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근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마르세유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어느새 마르세유 골목과 서울 골목 풍경을 오가며
정다운 이웃들의 일상을 흡치고 시간과 공간을 넘
어 가교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평범한 거리, 일상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에서 그가 찾아낸 평범하지 않은
의미들의 기록이다. 그에게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이 찍힌 이 사진들이,
한국 작가들이 쓴 소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텍스트였던 것이다.
그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그 기원과 연유를
헤아리기 어렵지만 한국에 붙들려 있다.
– 이승우, 소설가

“공기의 입김을 받아 쓴 이 책은 빛을 향한 여행이다.
움직이지 않아도 사진 속 인물들은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표현한다.
나는 사진이 지닌 이 같은 상승의 위력에서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빛을 찾으려 했다.”

–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신세계, CJ 등 대기업 그룹사 주요 계열사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서 3,000회 이상의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수행했고, 3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등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박종훈의 경제쇼>,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등 KBS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서 10년간 트렌드 관련 고정코너를 맡아 방송했다. SERICEO에서 트렌드 브리핑 <트렌드 히치하이킹>을, 휴넷CEO에서 <트렌드 인사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고 있으며, 다수 기업들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저서로 <리더의 각성Strong Leadership>, <라이프 트렌드 2024 : OLD MONEY>, <라이프 트렌드 2023 : 과시적 비소비>, <아웃스탠딩 티처Outstanding Teacher>, <ESG 2.0 :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라이프 트렌드 2022 : Better Normal Life>,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Professional Student>, <라이프 트렌드 2021 : Fight or Flight>, <언컨택트Uncontact>, <펭수의 시대>, <라이프 트렌드 2020 : 느슨한 연대Weak Ties>,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 대한민국 세대분석 보고서>, <라이프 트렌드 2019 : 젠더뉴트럴 Gender Neutral>, <라이프 트렌드 2018 : 아주 멋진 가짜Classy Fake>,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이프 트렌드 2017 : 적당한 불편>, <라이프 트렌드 2016 : 그들의 은밀한 취향>, <라이프 트렌드 2015 : 가면을 쓴 사람들>, <라이프 트렌드 2014 : 그녀의 작은 사치>, <라이프 트렌드 2013 : 좀 놀아본 오피스들의 귀환>,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엄마의 상식>, <트렌드 히치하이킹>, <페이퍼 파워>, <날카로운 상상력>,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공저로는 <머니 트렌드 2024>,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소비자가 진화한다> 등이 있다.

트렌드 전문 유튜브 채널 [youtube.com/c/김용섭INSIGHT](https://www.youtube.com/c/김용섭INSIGHT)

페이스북 [facebook.com/yongsub.kim](https://www.facebook.com/yongsub.ki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trendhitchhiking](https://www.instagram.com/trendhitchhiking)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코드

언컨택트 Uncontact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308쪽 | 18,000원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 라이프스타일의 거대한 진화는 이미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관심은 '언컨택트'에 집중되었다. 언컨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욕망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읽는 가장 중요한 진화 코드이다. 언컨택트는 소비의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종교와 정치, 연애를 비롯한 우리의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도 바꾸고 있다. 언컨택트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욕망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언컨택트를 유통과 소비 분야에서만 주목했다면, 이 책에선 범위를 더 확장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라이프스타일, 소비, 유통은 물론이고 산업적 진화와 기업의 업무 방식, 인맥과 사회적 공동체, 종교, 정치,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된 언컨택트 트렌드를 다룬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경제경영 1위)

2020
교보문고
올해의책 선정

일본 수출
소학관(小學館)
2020년 9월 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코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PROFESSIONAL STUDENT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336쪽 | 18,000원

불확실한 시대에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
우리는 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하는가
변화의 실체를 꿰뚫어 알고 위기를 기회로 써라!

팬데믹이 종식되고 코로나라는 장막이 걷어진 후 드러날 세상이 ‘진짜 위기’다. 업무가 자동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의 판도가 바뀐다. 변화는 가속화되고 위기는 일상화 된다. 미래의 실체를 놓치면 무능해지는 이유다.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위기에 적응하며, 거듭거듭 진화해나가는 사람이다. 전 세계 명문대 수업을 내 방에서 마음껏 수강할 수 있는 시대, MOOC, 마이크로 칼리지, 울트라 러닝, 그로우 위드 구글 등 관심을 켜 진짜 공부들이 오늘날의 혁신가들을 만든다.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 커져만 가는 대학무용론, 짧아지는 지식의 반감기 속에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치열한 생존 처방서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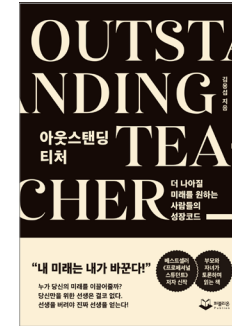
대만 수출

Heliopolis Culture Group

2022년 11월 출간

“지금 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뉴노멀(New Normal)일 것이다.
과거의 익숙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가
우리 일상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진 단지 현재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결국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우리 새로운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 김용섭



더 나아질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장코드

아웃스탠딩 티처 OUTSTANDING TEACHER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348쪽 | 20,000원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그 중심에 아웃스탠딩 티처가 있다!

내 미래는 내가 바꾼다!

아웃스탠딩 티처는 탁월한(뛰어난), 완벽한 선생을 의미한다. AI와 로봇, 자동화가 초래한 일자리 구조와 인제상, 교육관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이자, 학생과 선생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의 특별한 선생이다. 빠르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며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Professional Student)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선생이 바로 아웃스탠딩 티처(Outstanding Teacher)다. 아울러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진화하면 아웃스탠딩 티처가 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거듭난 당신을 가르칠 사람은 아웃스탠딩 티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진짜 공부의 시대, 당신은 과연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길 원하는가?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그 중심에 아웃스탠딩 티처가 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내 삶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강한 확신.
AI혁명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일지 모른다.

— 김미경, MKYU 확장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ESG 2.0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432쪽 | 22,000원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진화하고

위기가 심화된 세상, NEXT ESG가 필요하고

NEXT Leadership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ESG 경영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다!

ESG는 잠시 부는 열풍도 트렌드도 아니다. 패러다임을 넘어 자본주의의 주요 코드로 자리 잡을 문 화다. ESG는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 이다. 사회나 NGO가 말하는 ESG가 아니라, 정치 가 말하는 ESG가 아니라, 학계나 법제도가 말하는 ESG가 아니라, 자본과 기업이 말하는 ESG를 이해 해야 한다. 기회와 위기는 모두 거기서 나오기 때문 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ESG를 'ESG 2.0'으로 명명한 이 책은 ESG 열풍 속에 숨겨진 다양한 위험 신호와 ESG의 실체, 기업과 정치, 사회가 ESG 를 다룰 방향성 등 ESG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기존의 ESG에 대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SG 2.0 화두 속에서 더 나은 ESG를 모색하고, 이 후 ESG 3.0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점검해보는 기회 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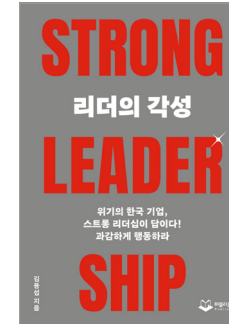
미래를 선도할

CEO가 꼭

읽어야 할 책!

“ESG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ESG 경영에선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의
소극적 ESG 1.0을 지나,
이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적극적 ESG 2.0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로서의 ESG가 초반을 주도했다면,
이제 경영으로서의 ESG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 김용섭



위기의 한국 기업, 스트롱 리더십이 답이다!

리더의 각성 STRONG LEADERSHIP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328쪽 | 20,000원

강한 리더십은 어떻게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선택되었을까?

위기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한국 기업, 한국 경제, 한국 정치 모두 위기다. 이 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위 기의 주범은 무능하면서 군림하기만 하는 보스들 때문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는, 과 거 관성에 젖어 있는 가짜 리더들 때문이다. 기후위 기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AI가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쏟아내는 시 대에 적용할 리더십은 무엇일까?

호황의 시대, 안정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위 기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2024년은 역대급 불확실성과 다중(복합) 위기의 시 기다. 한국은 더하다. 한국 경제도, 한국 기업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리더가 인기 관리하며 여 유 부릴 때가 아니다. 방향도 방법도 이미 정해졌 다. 미룬다고 외면한다고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 는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이끌 강한 리더로 진 화하라.

“지금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당신은 어떤 리더로 평가받고 싶은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답을 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 김용섭



Z세대, 그들이 바꿀 미래의 단서들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 328쪽 | 18,000원

미래 한국 사회를 주도할 강력한 진화 세대,
Z세대를 주목하라!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가장 강력한 진화 세대
Z세대를 이해하는 30가지 코드

Generation Z (1997~2012년생)

- ✓ 로봇을 가족으로 받아들이 첫 세대
- ✓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가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 ✓ 소비력, 경제력이 향후 10년간 가장 성장할 세대
- ✓ B급과 병맛을 좋아하고 개인의 취향과 코드를 중시하는 세대
- ✓ 젠더, 윤리, 환경 등의 다양한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세대
- ✓ 공정이 정의가 아닌 생존인 가장 현실적인 세대
- ✓ 돈쫄내기로 공정에 대한 보상을 직접 실현하는 세대
- ✓ 끈대는 No! 하지만 윤여정과 박막례에 열광하는 세대
- ✓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지만 사회·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
- ✓ 역대 청소년 중 정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

“코로나로 달라진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은
단연컨대 지금의 1020대인 Z세대들이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Z세대 몫이다.
MZ세대의 중심세력인 Core-MZ가
현재의 세상을 뒤흔들고,
그들에 의해 균열이 간
기성세대의 권력이자 세상의 주도권은
Z세대에 의해 완전히 바뀔 것이다.”

- 김용섭

TREND INSIGHT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코드

언컨택트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코로나가 몰고 온 영향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한 책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코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코로나 이후 세상, 공부의 맥락을 바꿔야 산다!
위기의 실체를 알고 나를 바꾸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보자

Z세대, 그들이 바꿀 미래의 단서들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미래 한국 사회를 주도할 강력한 진화 세대,
Z세대에게서 변화하는 세상의 미래를 읽어라!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ESG 2.0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진화하고 위기가 심화된 세상,
NEXT ESG가 필요하고 NEXT Leadership이 필요하다

더 나아질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장코드

아웃스탠딩 티처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그 중심에 아웃스탠딩 티처가 있다!

위기의 한국 기업, 스트롱 리더십이 답이다!

리더의 각성 김용섭(트렌드 분석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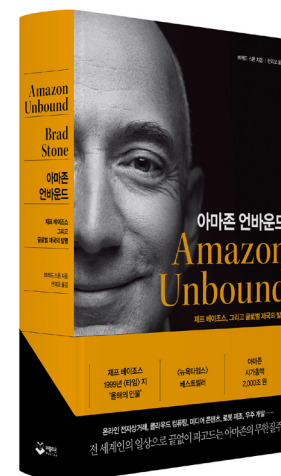
리더라면 끌려다니지 마라. 무조건 앞장서서 끌고 가라.
리드Lead하지 못하면 리더Leader가 아니다!

아마존 언바운드 Amazon Unbound

브래드 스톤 지음 | 전리오 옮김 | 832쪽 | 33,000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우주 개발까지
전 세계인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아마존의 무한질주!

아마존을 심층 취재한 탐사저널리즘의 탁월한 결과물



제프 베이조스
1999년 <타임> 지
'올해의 인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시가총액
2,000조 원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5년 아마존닷컴을 론칭한 제프 베이조스는 1996년에 벤처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으며 급속하게 사업을 확장해간다. 거친 야망과 시장 장악이라는 열렬한 꿈을 품고 1997년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이베이, 구글, 애플, 월마트 등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마존의 지배력을 키워나갔으며, 베이조스는 1999년 <타임> 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며 표지를 장식했다. 이후 아마존은 '빠르게 성장한다(Get Big Fast)'는 모토 아래 지속적인 발명, 빠른 의사결정, 더욱 폭넓은 기술적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21년 미국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3위의 기업이 된다. 이 책은 아마존이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존과 제프 베이조스가 과연 비즈니스 경쟁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지구와 지구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냉철하게 짚어보았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언바운드(자유 상태)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개 신생 소매업체를 막강한 ‘플랫폼 제국’으로 만든

제프 베이조스의 강력한 경영 리더십과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최상의 선택이 될 역작!

브래드 스톤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사가다. 만약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한 명의 전기작가를 가져야 한다면, 아마존에는 단연코 브래드 스톤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아마존이 거의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마존은 브래드 스톤을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전기작가로 만들었다.

• 존 미참(Jon Meacham), **폴리처상 수상자**

이처럼 생생하며 흥미진진한 일화들로 가득한 이 책에서, 브래드 스톤은 저렴한 가격과 놀라운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회사이자 수많은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파괴하는 기업의 내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간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마존 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독자들은 아마존의 회의 현장으로 안내되고, 탁월하지만 호전적인 제프 베이조스를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으며, 놀라운 효율성과 시장 지배력의 폐해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왜 각국 정부가 아마존 같은 디지털 대기업이 제기하는 독점의 위협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지 최신의 이야기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켄 올레타(Ken Auletta),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구글드Googled》 저자**

이 책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경영진들이 극복해야 했던 이슈와 해결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동기부여를 위한 내부 모토(motto)로 만든 “열심히 일하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역사를 만드세요(Work hard, Have fun and Make history)”는 아마존의 노력과 열정을 상징한다. 한편으로 아마존의 눈부신 성장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명암을 보여준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 지역 진출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여러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오늘의 아마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더욱 키워줄 것이다. 무엇보다 거대한 ‘플랫폼 제국’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의 강력한 경영 리더십과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 류영호, **《아마존닷컴 경제학(Amazonomics)》 저자, 교보문고 DT추진실 부장**

《아마존 언바운드》

저자 인터뷰

브래드 스톤(Brad Stone)

〈블룸버그뉴스〉 글로벌 테크놀로지 부문 수석주필

Q 왜 아마존에 관심을 갖게 됐나?

A 2011년 당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아마존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다. 사람들은 아마존을 ‘지루한 서점’ 정도로 봤겠지만, 나는 취재하며 아마존이 엄청나게 흥미롭다는 걸 깨달았다.

Q 약 300명을 인터뷰했는데, 기업은 내부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 어렵지 않았는지?

A 인터뷰이들은 익명의 퇴사자 또는 아마존이 취재를 허락한 현직원들이다.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일은 비밀을 좇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더 뒤쫓았다. 그 예로, 아마존이 오랫동안 숨겨온 ‘알렉사의 목소리’를 알아낸 것이 있다.

Q 저술 과정에서는 베이조스를 만나진 못했는데 베이조스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A 그는 전작에서 자신이 묘사된 방식에 화가 나 이 책을 위해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임원 및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는 했지만) 질문을 하나만 고르자면, 그에게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자신을 놀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Q 한국의 ‘쿠팡’은 흔히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린다. 성장 방식과 사업 모델에 있어서 흡사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A 나는 블룸버그에서 쿠팡을 공격적으로 취재해 왔다. 쿠팡은 성공을 위해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 왔고 물류 정복을 위해 많은 돈을 썼다. 빠른 배송은 아마존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 한국의 쿠팡도 마찬가지다.

Q 아마존이 미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의 명암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베이조스는 우리 시대 최고 기업가 중 한 명이며 아마존은 소비자들의 삶을 운택하게 만들었고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하지만 그의 방법 중 일부인 운송 사업, 직원을 대하는 방식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명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베이조스의 기업가정신은 무엇이고 그가 물려난 아마존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나?

A 베이조스의 성공은 그의 창의력에서 비롯된다. “큰 장점이 많지 않아 작은 장점으로 밧줄을 짜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전략이 큰 성공 요인이 됐다고 본다. 그의 후계자인 ‘앤디 재시’는 공감 리더로 아마존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깊게 생각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적은 나빠질 것이다. 재시의 과제는 새 환경에서 인재를 유지하고 혁신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Q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다. 아마존 ESG 경영은 어떠한가?

A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다. 이 투자는 고객이 ‘구매’를 클릭할 때의 감정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아마존은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Q 현재 ‘제2의 아마존’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신생 기업들이 있다면?

A 캐나다의 쇼피파이(shopify), 아마존 판매를 위한 타협, 수수료 없이 브랜드와 소매자가 온라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갖도록 방안을 제시해 아마존 대안으로 부상했고, 팬데믹 속에서 큰 승자로 떠올랐다.



소매업계의 강자가 되기 위한
아마존과 월마트의 기업 간 전투

위너 셀즈 올 Winner Sells All

제이슨 델 레이 지음 | 전리오 옮김 | 552쪽 | 23,000원

승자는 멈추지 않는다!

‘자기 파괴’를 넘어 ‘자기 혁신’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현재와 미래

시골 잡화점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유통 기업이 된
월마트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해 다양한
영역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아마존이 업계 최
강자가 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담았다.

IT 분야 온라인 매체 레코드(RECORD)에서 두 회
사의 성장과 변화를 보도해온 저자가 뉴스 보도,
회사의 공식 발언, 임직원 150여 명을 인터뷰한 내
용을 바탕으로, 이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패와 성공, 새로운 도약의 의
미를 짚어본다.

두 거대기업의 경쟁이 수천억 달러의 위협과 수백
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충성심을 저울질하며 미래
를 창조하고 자신의 유산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과
함께, 우리가 쇼핑하고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어
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진정한 주제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이 책은 그런 조직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료시킬 것이다.

— 〈월스트리트 저널〉

제이슨 델 레이의 숨겨진 통찰력은 깨달음을 주며,

저자는 기업들의 성공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도 거침없이 파헤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우주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NEW SPACE

이미 시작된 우주 자본의 시대

이임복 지음 | 276쪽 | 19,000원

2024년 최고의 키워드 ‘우주 산업’ IT 트렌드로 읽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기회이며

기회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

2024년 최고의 키워드는 ‘우주 산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 산업이 과학기술 발전과 군사적인
목적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우
주여행, 우주 인터넷 등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우주선을 만드는 부품, 달 궤도선
에 들어가는 부품, 착륙선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
에 우주에서 얻게 되는 광물자원, 인공위성으로 얻
을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
에 모든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는 기회이며, 기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 책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시작된
달 탐사부터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연 저궤도 위성,
눈앞에 다가온 우주여행, 우주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음 먹거리로 손을 뻗고 있는 우주 광물까지, ‘우주
시대’를 눈앞에 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
이 기회가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
가 되어준다.

“로켓 운송, 우주 인터넷,

우주여행, 우주 광물.

우주 산업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절대로 놓치지 말자!”

— 이임복(IT 전문 트렌트 워커)



필요한 만큼만 빌리고 Borrow & Share Flow & Play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빅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

방승천 지음 | 304쪽 | 20,000원

디지털 인재 플랫폼이 바꾸는
고용과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초거대 위협의 시대

디지털 인재 플랫폼과 빅 이코노미가
기업과 개인의 미래를 바꾼다!

빅 이코노미는 개인에게 단순히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뿐 아니라, 의미 있는 자신만의 일을 더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빅 이코노미를 활용한 인재소싱은 기업에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연한 총원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기업과 노동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빅 이코노미와 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빅 이코노미와 빅 워커가 어떻게 고용과 노동의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의 미래(future of work)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예측해본다. 빅 이코노미가 고용과 노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빅 이코노미를 어떻게 활용해야 나가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적정한 수(Right Number)의
적합한 사람(Right People)을
적기(Right Time)에 선발해
적소(Right Place)에 배치하는
전략적 인재총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 방승천



기술이 만드는 미래

WEB 3.0과 블록체인

야마모토 야스마사 지음 | 박제이 옮김 | 18,000원 | 232쪽

WEB 3.0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블록체인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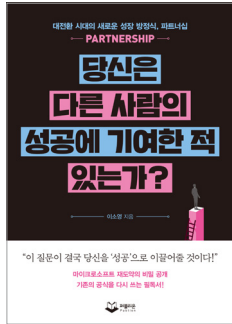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

블록체인 기술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 사회,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보기만’ 했던 Web 1.0의 세계와 쌍방향 소통이 실현된 Web 2.0의 세계에서, ‘블록체인’이 여는 미래 사회,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Web 3.0 세계의 디지털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웹 3.0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 탈중앙집권화로 정보를 관리하는 블록체인(분산형 장부) 기술로 새로운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한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전 구글 직원이자 미국 벤처 투자가로 활동 중인 저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먼저 찾으려 시도해 보기를, 나아가 그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특별대담 수록

〈정치와 사회까지 바꾸는 웹 3.0의 가능성〉
야마모토 야스마사(하버드대 객원 연구원)
& 쓰쓰이 기요테루(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파트너십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이소영(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지음 | 17,000원 | 280쪽

혁신, 변화, 도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성장 공식

일터에서, 일터 밖에서, 삶의 영역까지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비밀, 파트너십!

가장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는 IT 업계에서 ‘늪은 공룡’으로 불리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시총 1위로 재도약했을까? 정체에 빠져 있던 회사에 새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조직에 성장 마인드셋을 도입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평가에 도입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문화로 바뀌었으며, 10배 추가 성장을 달성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끈 방식이 개인의 성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하며, 이 성장 방정식을 ‘파트너십’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조직 내에서, 상사와 부하, 그리고 직원들 간의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가지면 위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수출
DIAMOND, INC.
2022년 5월 출간

파트너십이야말로 모든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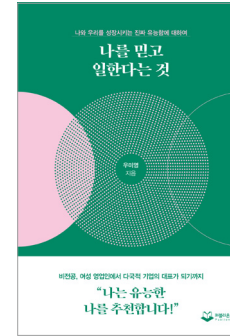
—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파트너십은 1+1이 2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 장동선, 뇌과학 박사

인맥과 성공의 의미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표, PD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짜 유능함에 대하여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우미영 지음 | 16,000원 | 256쪽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는 진짜 일을 하세요!

비전공, 여성 영업인에서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

어도비코리아 대표가 말하는 6가지 일하기 철학

매일 ‘일하는 나’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출, 성과 그 이상의 것이다. 무리였던 일들이 점차 몸에 익어가고, 갈등하던 동료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때, 마음 한구석이 빠근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나’를 실감한다.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명도, 체념도 없이 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조용한 자기 다짐이다. 불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고 싶은 프로페셔널들을 위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복기의 힘’, ‘결과 속을 일치시키는 자신감’, ‘기회 앞에서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용기’ 등 우미영 어도비코리아 대표가 지난 30년을 달려오며 익혀온 6가지 일하기 철학을 현장의 지혜와 격려를 담아 전한다.

매일의 출근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사람,
나를 키우는 진짜 일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기본 좋은 자극과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수정, KT 부사장

단점보다 장점을 앞세우는 법,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더 멀리 나아가는 법,
사내 외교력을 높이는 법 등
현장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이 책에 담겨 있다.

— 손병옥, WIN(Women in INnovation) 전 회장



일과 삶에서 승률을 높이는 성취의 기술

어치브 모어 ACHIEVE MORE

김성미 지음 | 18,000원 | 356쪽

세계 최고의 IT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18년 IT 영업 경력의 마이크로소프트

채널 매니저가 무수한 일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며 터득한 성취의 기술

일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성취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아마도 작고 쉬운 일을 할 때는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성취하려는 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저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하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으로 일하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Non-IT에서 IT로, 비영업에서 영업으로 커리어를 바꾸며 매출 380퍼센트의 신화를 이룬 저자가 18년간 무수한 일을 시도하고 실패하며 성공하는 동안 온몸으로 터득한 성취의 기술이 이 책에 집약되어 있다. 회사의 일과 개인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일의 규모와도 상관없이 자기 일의 본질을 고민하여 일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공개한다.

인지심리학자로서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에서 강연과 자문을 할 때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
사원하게 답해주는 책이 나왔다.
세심하면서도 분명하다.
일을 통해 성장과 성공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독을 해야 하는 책이다.
-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통련 브랜드를 만드는 35가지 콘텐츠 공식

감성 콘텐츠

가해속 지음 | 17,000원 |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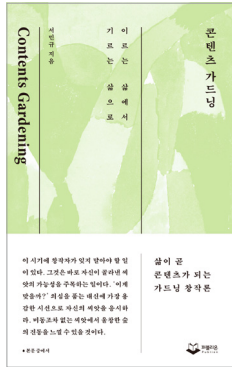
3초 안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콘텐츠 만들기의 모든 것!

20년 차 감성 마케터 ‘엘슈가’가 전하는

깔리고 팔리게 만드는 감성 콘텐츠의 비밀

회사에 다닐 줄만 알았지 사업은 ‘1도 몰랐던’ 위
킹맘이 자본 없이 온라인 비즈니스, 콘텐츠 영역에
서 사업을 시작해 10년 동안 수익을 내며 N잡러형
1인 기업가로 통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좋아요’를 누르게 만드는 감성 비주얼, 3초 만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콘텐츠, 플레이를 누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감성 콘텐츠다.
10여 년간 9,000여 개의 콘텐츠를 생산한 저자 엘
슈가가 콘텐츠에 나만의 감성을 담는 법, 퍼스널 브
랜드로 통련하는 법을 담은 『감성 콘텐츠』에서 남
다른 콘텐츠 기획력과 수익을 내는 감성 콘셉팅 방
법을 공개한다. 감성 콘텐츠로 신뢰를 구축하는
법, 남들과 다른 온라인(only one)이 되는 법,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한 감성 자본 활용법, 전편 1,000
명을 만드는 감성 마케팅 핵심 노하우, 퍼스널 브랜
드 만들기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콘텐츠 생산하
는 데 필요한 실전 팁을 소개한다.

“감성 콘텐츠로 나만의 스토리를 전달하면
더 잘하는 사람, 더 인기 많은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보다 ‘온리원’으로 각인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누군가와 공감을 나누는 것은
경쟁이나 우위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브랜드가 되는 효과를 준다.”
- 가해속



이르는 삶에서 기르는 삶으로 콘텐츠 가드닝

서민규 지음 | 15,000원 | 240쪽

삶이 곧 콘텐츠가 되는 가드닝 창작론

무성한 잡초, 햇빛은 흙빛 정원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기르는, 새로운 사유의 시작!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에세이집 출간, 브이로그 촬영, 웹툰 발행, 커뮤니티 구축 등,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콘텐츠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길을 잃는 사람도 늘었다. ‘가장 나다운 콘텐츠는 무엇일까?’, ‘왜 내 콘텐츠만 초라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콘텐츠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초심 창작자들에게 제작이 아닌 가드닝의 길을 제안한다. 저자는 콘텐츠 코치로서의 경험과 오래 사유를 통해 삶이 곧 콘텐츠가 되는 가드닝 창작론을 체계화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한 씨앗을 발견하고 기르는 법, 그 가능성에 양분을 주고 꽃을 피우는 법, 잡초 생장기를 통해 슬럼프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법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길러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준다.

“이 시기에 창작자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골라낸 씨앗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일이다. ‘이게 맞을까?’ 의심을 품는 대신에 가장 용감한 시선으로 자신의 씨앗을 응시하라. 미동조차 없는 씨앗에서 울창한 숲의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서민규



스스로 학습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비밀

캐리비안 해적들의 비밀 공부법

제임스 마커스 바크 지음 | 전리오 옮김 | 352쪽 | 18,000원

제임스 바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캐리비안 해적 스타일의 공부법’으로 커리어를 쌓아, 학위도 자격증도 없지만 애플컴퓨터 최연소 매니저가 되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의 권위자로 성공한 비결을 담았다. 정규교육의 골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사람, 기성 교육제도와 다른 교육방식에서 장점을 찾는 사람, 졸업장이나 학위,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 남다른 열정으로 평생 공부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대체자아 활성화 가이드

알터 에고 이펙트 The Alter Ego Effect

토드 허먼 지음 | 전리오 옮김 | 400쪽 | 18,000원

미국 최고의 멘탈게임 전략가, 토드 허먼이 20여 년 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쓴 대체자아(Alter Ego) 활용서다. 부캐는 가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웅을 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관찰자 기법(Observer Technique)’, ‘몰입 기법(Immersion Technique)’, ‘착용자 인식(Enclosed cognition)’ 등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 자신을 억누르는 의심, 부정, 불안감을 떨쳐내고 ‘최고 버전의 나’를 만들게 도와준다. 특히 비윤세, 데이비드 보위,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의 실례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대체자아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록 독서의 기록

안예진 지음 | 268쪽 | 18,000원

독서가 여전히 취미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기록'할 때이다!

도서 블로그 운영 1년 만에 인생이 변한 20년차
직장인이 알려주는 독서법, 글쓰기법, 블로그 운영법!
도서 인플루언서가 된 비결!

전 세계를 누비던 대기업 부장이던 저자가 번아웃을 겪은 후 휴직을 하고, 하루 1권 읽은 책의 리뷰와 세계 34개국 방문 경험의 인생 에세이를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관계적 자유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담았다.

블로그에서 '꿈꾸는 유목민'으로 활동하는 저자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독서 술법', '글쓰기 술법', '블로그 운영법', '독서 기록 워크시트'까지 그대로 따라 하면 5개월 만에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비법이 담겨 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루틴을 통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독서와 기록이 단순한 취미나 일상의 일부가 아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독서와 기록으로 변화된 나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건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서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자체가 남다르다.
나 또한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독서의 기록으로 시작된 인생의 선순환이
복리로 작용할 1년, 5년 후가 더 기다려진다.
독서와 기록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한 이유다.”

— 안예진(꿈꾸는 유목민)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여행법 여행의 기록

안예진 지음 | 288쪽 | 19,000원

기억이 의미가 되는 순간!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여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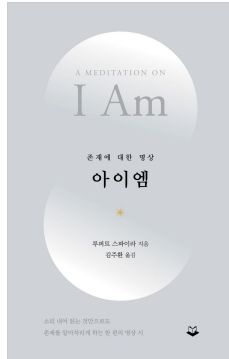
난생처음 떠난 유럽 30일 캠핑카 여행
'기록'으로 완성하는 여행 이야기

소비만 하는 여행은 이제 그만!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여행의 기록'에 도전했다. 좌충우돌 무계획이었지만, 난생처음 유럽에서 한 달간 캠핑카 여행을 하며 얻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을 공유한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 법, 여행의 기록이 쌓이면 가족의 역사가 된다. 여행 전 준비, 기록하는 방법, 여행 후 기록을 재구성하는 꿀팁까지, '기록'을 통해 여행은 더욱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된다.

이 책으로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여행법을 배워보자. 여행의 완성은 기록이니깐! 여행의 기록은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내면화하는 작업이다. 이 책은 여행 전 기록 준비, 여행 중 기록 소스를 만드는 다양한 도구 활용법, 여행 후 기록을 재구성하는 방법까지, 기록 습관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팁을 제공한다.

“‘여행’이라는 인생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다시 살게 해주는 게
기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여행의 기록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 또한
여행과 같음을 느끼고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다.”

— 안예진



존재에 대한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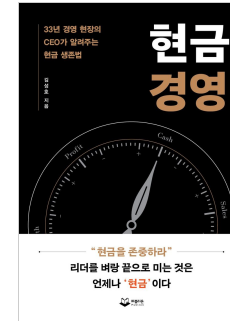
아이엠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 김주환 옮김 | 16,000원 | 144쪽

★ 2026년 신간

루퍼트 스파이라가 30년에 걸쳐 다듬은 명상 시집이다.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 명상이 되는 시와 철학적 서문, 탄생 과정을 담은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절이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 가이드가 되어,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 깊은 체험이 된다고 옮긴이 김주환 교수는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경험 이전의 나로 돌아가게 하는 책이다.

분야	인문
발행일	2026.04.01
판형	110×175mm
ISBN	979-11-91587-88-3



33년 경영 현장의 CEO가 알려주는 현금 생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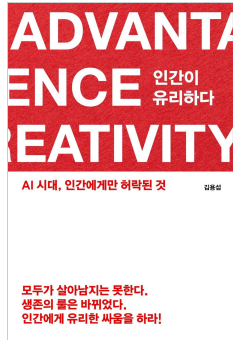
현금경영

김성호 지음 | 22,000원 | 392쪽

★ 2026년 신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다음 책을 준비하기 어려워진다. 33년을 경영 현장에서 보낸 김성호는 기업이 이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살아간다는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현금관리는 재무팀의 일이 아니라 리더의 일이며, 현금만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분야	경제경영
발행일	2026.05.01
판형	148×210mm
ISBN	979-11-91587-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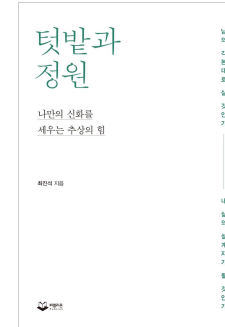


AI 시대,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
인간이 유리하다
 김용섭 지음 | 23,000원 | 344쪽

★ 2026년 신간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에게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김용섭 소장은 AI 시대의 본질이 대체가 아니라 격차라고 말한다. AI가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AI를 장악한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밀어낸다는 것이다. 진짜 경쟁력은 AI 스킬과 휴먼 스킬의 곱이며, 어느 한쪽이 0이면 전체가 0이 된다. 창의 성과 비판적 사고, 공감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사람만이 AI를 지휘하게 된다고 본다.

분야 경제경영
 발행일 2026.07.01
 판형 140×210mm
 ISBN 979-11-91587-93-7



나만의 신화를 세우는 추상의 힘
텃밭과 정원
 최진석 지음 | 20,000원 | 256쪽

★ 2026년 신간

인류가 걸어온 가장 거대한 정신의 여정을 추상이라는 한 단어로 꿰는 책이다. 최진석 교수는 바빌론과 이집트가 남긴 방대한 기록이 생존의 장부에 머문 반면, 고대 그리스인이 끌어낸 추상은 세계를 설계하는 도면이 되었다고 말한다. 텃밭을 기록하는 시선과 정원을 설계하는 시선의 차이이다. 왜라는 질문이 추상의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를 오른 사람만이 타인의 각본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된다고 본다.

분야 인문
 발행일 2026.09.10
 판형 128×188mm
 ISBN 979-11-91587-96-8

2020



언컨택트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
김용섭 지음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짜
유능함에 대하여
우미영 지음

2021



알터 에고 이펙트
대체자야 활성화 가이드
토드 허먼 지음
전리요 옮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코드
김용섭 지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방식,
파트너십
이소영 지음



콘텐츠 가드닝
이르는 삶에서 기르는 삶으로
서민규 지음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Z세대, 그들이 바꿀 미래의 단서들
김용섭 지음



아마존 언바운드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글로벌
제국의 발명
브래드 스톤 지음
전리요 옮김

2022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미나 페르호넨 이야기
미나가와 아키라 지음
김지영 옮김



감성 콘텐츠
통련 브랜드를 만드는 35가지
콘텐츠 공식
가혜숙 지음



**캐리비안 해적들의 비밀
공부법**
스스로 학습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비밀
제임스 마커스 바크 지음
전리요 옮김



ESG 2.0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김용섭 지음



휴먼 프런티어
초연결시대에 생각해보는 거대한
아이디어의 미래
마이클 바스카 지음
전리요 옮김



플래닛 B는 없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150가지 질문과 대답
마이크 버너스-리 지음
전리요 옮김



어치브 모어
일과 삶에서 승률을 높이는 성취의
기술
김성미 지음



나는 나를 응원합니다
칭고 지음
아넬리스 그림

2023



기후파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전
이재형 지음



아웃스탠딩 티처
더 나아질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장코드
김용섭 지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김주한 옮김



독서의 기록
내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록
안예진 지음



기술이 만드는 미래 WEB 3.0과 블록체인
아마모토 야스마사 지음
빅제이 옮김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시간의 틀에서 건져 올린 집, 자연,
삶
장은진 지음



파견자들
김초엽 장편소설
김초엽 지음



**빅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
필요한 만큼만 말기고,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방승천 지음



빛을 향한 여행
머뭇과 떠남
장클로드 드크레센츠 지음
이소영 옮김

2024



NEW SPACE
이미 시작된 우주 자본의 시대
이임복 지음



리더의 각성
위기의 한국 기업, 스트롱 리더십이
답이다
김용섭 지음



위너 셀즈 올
소매업계의 감자가 되기 위한
아마존과 월마트의 기업 간 전투
제이스 델 레이 지음
전리요 옮김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
바버라 데이비스 지음
박산호 옮김



문자의 역사
인류 문명사와 함께한 문자의
탄생과 발전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
강주원 옮김



**미나 페르호넨 디자인 여정:
기억의 순환**
미나가와 아키라 지음
서하나 옮김



여행의 기록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여행법
안예진 지음

2025



사물의 투명성
경험의 본질을 관조하다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김주한 옮김



당신과 함께, 유럽
여행 작가 양영훈의 다시 찾고 싶은
유럽 도시 기행
양영훈 지음



나는 언제나 나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주잔나 첼레이 그림 · 김주한 옮김



나는 고독한 별처럼
이케자와 하루나 지음
서하나 옮김

2026



10대의 독서
읽고, 묻고, 나아가는 독서의 힘
류지후 지음



가든 타임
단단한 삶을 위한 시간
이소영 지음



아이엠
존재에 대한 명상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김주한 옮김



현금 경영
33년 경영 현장의 CEO가 알려주는
현금 생존법
김성호 지음



인간이 유리하다
AI 시대,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
김용섭 지음



덧발과 정원
나만의 신화를 세우는 추상의 힘
최진석 지음

도서정보 목록

번호	책제목	저자 / 역자	ISBN	정가	발행일	수상내역
1	언컨택트	김용섭	979-11-970168-0-6	18,000	2020.04.20	2020 교보문고 올해의책
2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우미영	979-11-970168-3-7	16,000	2020.11.05	
3	알터 예고 이펙트	토드 허먼 / 전리오	979-11-970168-5-1	18,000	2021.01.27	
4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섭	979-11-970168-7-5	18,000	2021.02.18	
5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이소영	979-11-970168-9-9	17,000	2021.03.25	
6	콘텐츠 가드닝	서민규	979-11-91587-02-9	15,000	2021.06.18	
7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	979-11-91587-06-7	18,000	2021.08.10	
8	아마존 언바운드	브래드 스톤 / 전리오	979-11-91587-09-8	33,000	2021.12.01	2022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9	살아가다 알하다 만들다	미나가와 아키라 / 김지영	979-11-91587-11-1	17,000	2022.01.20	
10	감성 콘텐츠	가혜숙	979-11-91587-13-5	17,000	2022.03.22	
11	캐리비안 해적들의 비밀 공부법	제임스 마커스 바크 / 전리오	979-11-91587-15-9	18,000	2022.04.15	
12	ESG 2.0	김용섭	979-11-91587-24-1	22,000	2022.07.01	
13	휴먼 프런티어	마이클 바스카 / 전리오	979-11-91587-27-2	25,000	2022.10.01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14	어치브 모어	김성미	979-11-91587-29-6	18,000	2022.12.10	
15	플래닛 B는 없다	마이크 버너스-리 / 전리오	979-11-91587-30-2	25,000	2022.12.01	
16	나는 나를 응원합니다	칭고 글 / 대불스 그림	979-11-91587-31-9	22,000	2022.12.25	
17	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회세대로	이재형	979-11-91587-35-7	18,000	2023.01.30	2022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18	아웃스탠딩 티처	김용섭	979-11-91587-38-8	20,000	2023.03.24	
19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 김주환	979-11-91587-41-8	18,000	2023.05.25	
20	독서의 기록	안예진	979-11-91587-42-5	18,000	2023.06.15	
21	기술이 만드는 미래 WEB 3.0과 블록체인	아마모토 야스마사 / 박제이	979-11-91587-49-4	18,000	2023.08.23	
22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장은진	979-11-91587-50-0	19,500	2023.09.09	2023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23	파견자들	김초엽	979-11-91587-52-4	19,000	2023.10.13	2024 문학나눔 도서 선정 / 2024 예스24 올해의책
24	각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	방송천	979-11-91587-54-8	20,000	2023.11.10	
25	빛을 향한 여행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 이소영	979-11-91587-55-5	19,000	2023.12.10	
26	NEW SPACE 이미 시작된 우주 자본의 시대	이임복	979-11-91587-60-9	19,000	2024.02.07	
27	리더의 각성	김용섭	979-11-91587-62-3	20,000	2024.04.01	
28	위너 셀즈 올	제이슨 델 레이 / 전리오	979-11-91587-66-1	23,000	2024.06.20	
29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	바버라 데이비스 / 박신희	979-11-91587-67-8	19,000	2024.06.24	2025 문학나눔 도서 선정
30	문자의 역사	스티븐 로저 피셔 / 강주현	979-11-91587-71-5	33,000	2024.11.01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31	미나 페르호넨 디자인 여정: 기억의 순환	미나가와 아키라 / 서하나	979-11-91587-72-2	43,000	2024.11.01	
32	여행의 기록	안예진	979-11-91587-73-9	19,000	2024.11.11	
33	사물의 투명성	루퍼트 스파이라 / 김주환	979-11-91587-76-0	22,000	2025.01.23	
34	당신과 함께, 유럽	양영훈	979-11-91587-79-1	25,000	2025.04.01	
35	나는 언제나 나	루퍼트 스파이라 / 김주환	979-11-91587-81-4	18,000	2025.08.01	
36	나는 고독한 별처럼	이케자와 하루나 / 서하나	979-11-91587-82-1	18,000	2025.11.25	
37	10대의 독서	류지후	979-11-91587-83-8	18,000	2026.02.02	
38	가든 타임	이소원	979-11-91587-84-5	23,000	2026.02.10	
39	아이엠	루퍼트 스파이라 / 김주환	979-11-91587-88-3	16,000	2026.04.01	
40	현금경영	김성호	979-11-91587-90-6	22,000	2026.05.01	
41	인간이 유리하다	김용섭	979-11-91587-93-7	23,000	2026.07.01	
42	뒷밭과 정원	최진석	979-11-91587-96-8	20,000	2026.09.10	

퍼블리온 도서목록

발행일	2026년 9월 12일
발행인	박선영
발행처	퍼블리온
출판등록	2020년 2월 26일 제2022-000096호
전화	010-3207-0033
팩스	032-232-6300
전자우편	info@publion.co.kr

※ 비매품

